■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03-433.
http://doi.org/10.17948/kcs.2022..95.403

남북 음악 전문용어 유형과 어종 분석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령령(金玲玲)* ・ 신중진(愼重珍)**

목 차

1. 서론
2.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
3.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음악 교과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남북 음악 전문용어를 대응쌍 형태의 동일 여부에 따라 나누고 서구 음악의 영향을 적게 받은 전통 음악으로서의 동양 음악 용어와 서양 음악 용어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어종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남북 동형 전문용어는 즉시 통합이 가능한 용어, 어문규범 통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한 용어로 전체 음악 전문용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양 음악 용어는 정악이나 민속악과 관련된 용어가 대부분으로 정악은 한자어로 많이 나타나고 민속악은 고유어나 한자어로 많이 나타났으며 서양 음악 용어는 악기나 인명, 연주법과 관련된 용어가 외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성악이나 기악 등 음악 이론과 관련

* 제1저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 교신저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된 기초적인 음악 이론 용어가 한자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 이형 전문용어는 대부분이 서양 음악 용어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남측의 조어 단위 '자진'과 북측의 '잦은', '음표'와 '소리표', '표'와 '기호', '장·단'과 '대·소'의 대응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규칙을 이해하면 용어별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주제어: 음악 전문용어, 동양 음악 용어, 서양 음악 용어, 남북 전문용어, 어종.

1. 서론

남과 북은 동일한 역사와 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분단되면서 점차적으로 언어가 이질화되기 시작하여 차이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음악 전문용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음악 전문용어는 역사적으로 동양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중국에서 유래된 음악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세종 때부터 악보 간행, 악기 제작, 악서 찬정 등 독자적인 국악화 길을 걷기 시작했고, 1895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음악이 유입되었으며, 그 때부터 악리, 성악, 기악 등을 비롯한 양악 이론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 음악은 국악과 서양 음악이 어울려 공존하는 모습으로 동·서양 음악 모두 한국 음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1)]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용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전문용어의 통합은 통일 교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탈북민 교육 현장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고는 음악 교과 분야 전문용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형태가 동일한 용어도 있고, 형태가 다르지만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는 용어도 있다. 전자는 즉시 통합이 가능한 용어들이고, 후자는 규칙을 이해하면 용어별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

1) 장사훈,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91.

들이다. 남북 전문용어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응 유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 용어가 어떤 양상으로 대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서양 음악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를 대응쌍 형태의 동일 여부에 따라 나누고 전통 음악으로서의 동양 음악 용어와 서구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양 음악 용어로 유형을 세분하였다. 그리고 동・서양 용어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종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별 특징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남측과 북측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편수자료와 사전 등 자료를 활용하여 음악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활용된 남북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

〈표 1〉 남북 음악 자료

구분	유형	자료	연도	출판사
남측 자료	교과서	『중학교 음악1,2』	2015	미래엔
		『고등학교 음악』	2015	미래엔
		『편수자료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2017	교육부
	편수자료・사전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Ⅱ』	200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두산동아
		『우리말샘』	2016	국립국어원
북측 자료	교과서	『초급중학교 음악무용1,2』	2013,2014	교육도서출판사
		『초급중학교 음악무용교수참고서 1』	2013	교육도서출판사
		『고급중학교 예술1,2,3』	2013~2015	교육도서출판사
	편수자료	『고급중학교	2013	교육도서출판사

2)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해온 2019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교재를 위주로 용어를 수집하였으며, 남측은 대표적인 미래엔 교재를, 북측은 최신 개정판 교재를 대상으로 음악 전문용어의 목록을 추출한 것이다. 본고는 이 연구의 연장선으로 남북 중・고등학교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과 어종 특징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립국어원,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9.

	· 사전	예술교수참고서(음악무용)1』		
		『광명백과사전6 : 문화예술』	2008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	사회과학출판사

2.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

남측과 북측은 형태가 같은 용어도 있고 다른 용어도 있다. 본고는 전자를 동형 전문용어, 후자를 이형 전문용어로 본다. 동형 전문용어에는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 동형 전문용어가 있고 형태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 동형 전문용어도 있다. 부분 동형은 남북 어문 규범 차이로 인해 달라진 경우이다. 편의를 위해 완전 동형 전문용어는 AA형, 부분 동형 전문용어는 Aa형, 이형 전문용어는 AB형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기원적으로 동양에서 발생하고 전승한 음악은 동양 음악으로 분류하고 서양에서 발생하고 발달한 음악은 서양 음악으로 분류한다.[3] 이렇게 남북 형태 차이와 기원의 차이로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을 나누면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별로 예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별 예시

유형		동양 음악	서양 음악
동형	완전 동형 (AA)	거문고(남):거문고(북)	바이올린(남):바이올린(북)
		황종(남):황종(북)	사분쉼표(남):사분쉼표(북)
		단모리장단(남):단모리장단(북)	안단테(남):안단테(북)
	부분 동형 (Aa)	가부키(남):가부끼(북)	글리산도(남):글리싼도(북)
		뇌고(남):뢰고(북)	낭만주의(남):랑만주의(북)
		뱃노래(남):배노래(북)	아랫성부(남):아래성부(북)
이형(AB)		수공후(남):선공후(북)	가단조(남):라소조(북)
		북채(남):북망치(북)	음표(남):소리표(북)
		고려시대음악(남):고려시기음악(북)	갈려가기(남):엇가기(북)

3) 본고는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여 동·서양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기원과 전승 지역을 판단하여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으로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기악, 성악'과 같은 용어는 현재 동·서양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이들은 서양에서 발생하고 발달한 용어이므로 서양 음악 용어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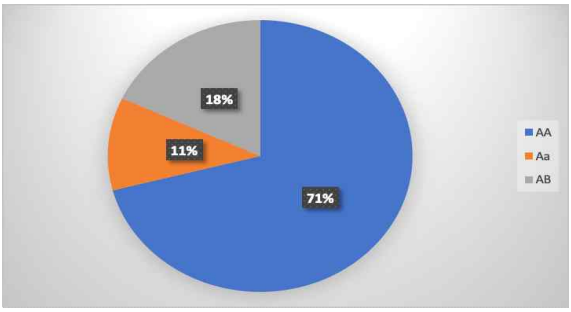
완전 동형 음악 전문용어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 즉시 통합이 가능하고 통일 교재 편찬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용어들이다. 동양 음악의 예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한국 고유 악기 '거문고', 한국의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이론 용어 '황종', 판소리나 산조에 쓰이는 국악 장단 '단모리장단'을 들 수 있다. 서양 음악의 예로 유럽의 대표적인 현악기 '바이올린', 쉼을 나타내는 음악기호 '사분쉼표', 음악의 빠르기말 '안단테'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부분 동형 음악 전문용어는 남북 외래어 표기법, 두음 법칙, 사이시옷 등 어문 규범 차이로 인해 대응된다. 이런 용어들은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남북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이는 어문 규범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쉽게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예로 일본의 전통 공연 예술을 나타내는 '가부키-가부끼',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급속한 음계에 의해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라는 연주법 용어 '글리산도-글리싼도' 등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과 관련한 동양 음악 용어로 아악에 사용되는 북의 하나인 '뇌고-뢰고'가 있고 서양 음악 용어는 근대적 문예사조를 나타내는 '낭만주의-랑만주의'가 있다. 사이시옷의 예로 경상도 민요인 '뱃노래-배노래'와 다성음악에서 성부의 유형을 나타내는 '아랫성부-아래성부'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이형 음악 전문용어는 남북이 형태적으로 차이가 생긴 용어들로 통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용어들이다. 동양 음악의 예로 국악기의 하나인 '수공후-선공후', 국악에서 북을 치는 조그만 방망이를 가리키는 '북채-북망치', 국악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용어 '고려시대음악-고려시기음악' 등을 들 수 있다. 서양 음악의 예는 단조 중 '가'음을 으뜸음으로 시작하는 단음계 '가단조-라소조', 음의 길이 또는 높이를 지시하는 기호 '음표-소리표', 그리고 화성학이나 대위법에서 두 성부가 반대 방향으로 갈려가는 것을 뜻하는 '갈려가기-엇가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일차적으로 남북 용어 대응쌍의 형태 동일 여부에 따라 동형과 이형으로 나누고, 이차적으로 동·서양 음악 용어로 나누어 즉시 통합이 가능한 용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는 용어, 그리고 단편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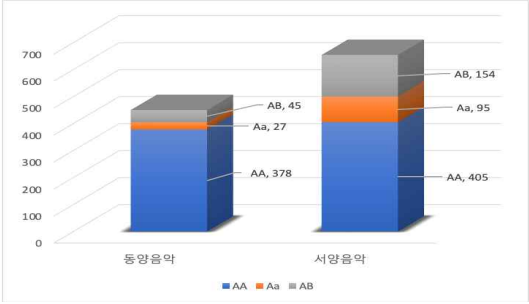
고 일회적인 차이가 있는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음악 용어들인지, 어떤 대응 규칙과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104쌍의 남북 음악 전문용어를 통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1〉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유형별 출현 빈도

남북 음악 전문용어에서 완전 동형인 AA형은 783쌍으로 전체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71%를 차지하고 부분 동형인 Aa형은 122쌍으로 11%를 차지하며 이형인 AB형은 199쌍으로 18%를 차지한다.

형태가 일치하는 용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형태가 다른 용어는 전체의 30%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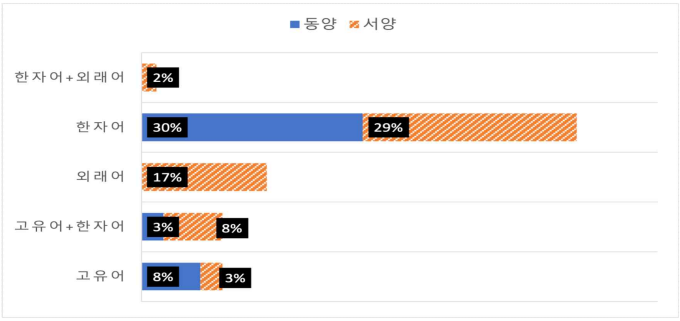


〈그림 2〉 동・서양 음악 용어의 분포(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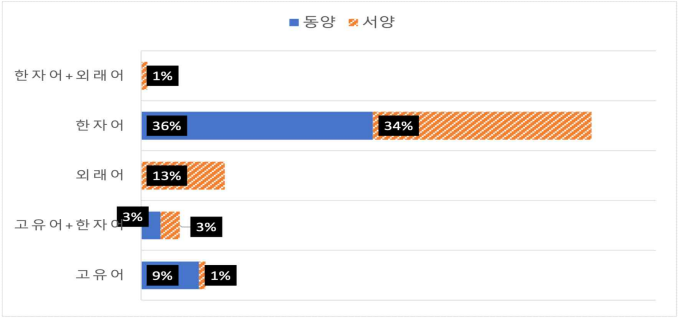
동・서양 음악 체계에 따라 남북 전문용어 대응쌍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서양 음악 용어는 654쌍, 동양 음악 용어는 450쌍으로 서양 음악 용어가 더 많은 편이다. 동양 음악에서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AA형은 378쌍(84%), 서양 음악에서는 405쌍(62%)를 차지한다.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Aa형이나 형태가 다른 AB형은 모두 서양 음악 용어가 동양 음악 용어보다 많다. 동양 음악에서 Aa형은 27쌍(6%), 서양 음악에서는 95쌍(14%)를 차지한다. 동양 음악에서 AB형은 45쌍(10%), 서양 음악에서는 154쌍(23%)를 차지한다.

동양 음악이 서양 음악보다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적 일치도가 높고, 서양 음악이 동양 음악보다 상대적으로 형태적 일치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그림 4〉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어종별로 살펴보면 남측과 북측 모두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한

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5가지 어종이 출현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남북 모두 한자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동·서양 음악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이다. 다른 점은 남측이 북측보다 고유어+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자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특히 고유어+한자어에서도 서양 음악 용어의 비율이 남측이 북측보다 높고, 동양 음악 용어의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남측과 북측의 서양 음악 용어에 대한 순화 정도가 달라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어의 비율은 남측이 여전히 북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형태적으로 대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자어가 동일하고 특히 동양 음악 용어가 서양 음악 용어보다 일치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가 다른 경우는 동양 음악보다 서양 음악 용어에서 많이 나타나며, 일부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에서 형태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형태가 동일한 전문용어는 향후 즉시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통합의 초점은 형태가 일치하지 않은 전문용어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양 음악 용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남북 순화 결과가 다른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대응 규칙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 구체적인 용어를 살펴보고 어종과 특징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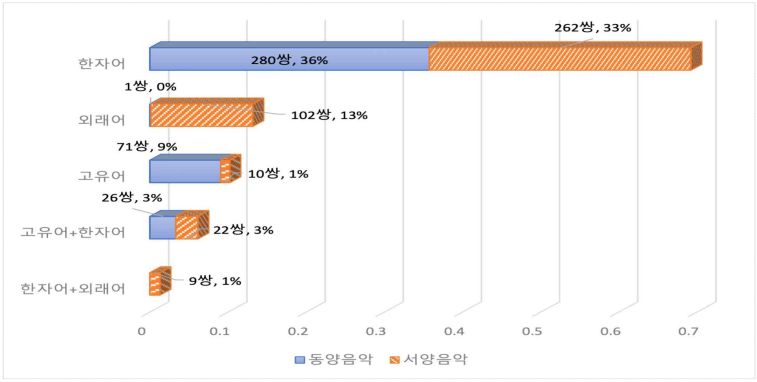
3. 남북 음악 전문용어 어종

1) 완전 동형 음악 전문용어[4)]

완전 동형 전문용어의 어종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 등 5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한자어가 542쌍(69%)로 압도적으로 많고 한자어보다는 훨씬 적지만 외래어가 103쌍(13%), 고유어는 80쌍(10%)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고유어+한자어는 48쌍(6%)로 4위를 차

4) 이 연구는 남북 음악 용어의 대응 유형을 중심으로 어종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 대응 용어를 형태 동일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어종을 분석하였다.

지한다. 한자어+외래어는 9쌍으로 1%밖에 안 된다.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한자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5〉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

AA형 음악 전문용어를 동·서양 음악 용어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유어는 동양 음악 용어가 서양 음악 용어보다 훨씬 많고, 한자어와 고유어+한자어는 동·서양 음악 용어의 출현 빈도가 비슷하며 외래어와 한자어+외래어는 서양 음악 용어만 출현하였다.

(1) AA형 동양 음악 용어

AA형 동양 음악 용어는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은 고유어, 고유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어 중에 유일하게 동양 음악 용어로 나타난 전문용어는 '탐탐'[5]이고 한자어+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자어, 고유어, 고유어+한자어의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위키백과』에 의하면 '탐탐(tam-tam)'은 중국에서 기원된 타악기로 이름의 유래는 아이들의 장난감 북을 의미하는 영국 고유어, 혹은 그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표 3〉 AA형 한자어 동양 음악 용어 예시

국악 장르	국악 유형	정악, 아악, 당악, 세악, 연례악, 전악, 고취악
	무용 유형	기악무, 문무, 일무, 처용무, 협무, 회무
국악기	각종 '고'	갈고, 삭고, 법고, 요고, 응고, 수고, 절고, 대고, 토고, 교방고
	각종 '금'	금, 소금, 대금, 해금, 월금, 현금
	각종 '공후'	공후, 와공후[6]
	각종 '비파'	비파, 향비파, 당비파[7]
	단음절 악기	쟁, 적, 슬, 독, 어, 지, 축[8]
궁중 음악	행사	나례, 팔관회[9], 초헌[10], 진연, 진찬, 진하, 계라, 대취타, 겸내취
	관아	아악서, 음성서, 전악서, 태상시, 장악원
	음악인	세악수, 내취, 악장, 악공, 악생, 공인
	의복	목화, 무변, 오정대, 흑피화
	의물・기구	자, 작선, 미선, 정절, 지당판, 채구
국악 작품	작품명	초삭대엽, 흥부가,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수심가, 수궁가
	책명	가곡원류, 시용향악보, 청구영언, 해동가요, 악장가사, 악학궤범

AA형 한자어 동양 음악 용어에는 국악 장르, 국악기, 궁중 음악, 국악 작품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 모두 국악과 관련된 용어인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국악 중에서도 궁중에서 각종 의례에 쓰였던 음악인 정악과 관련되는 용어가 많은 편이다. 위 도표의 예시를 보면 국악의 유형을 분류할 때 쓰이는 용어, 무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용어, 국악기 중에서 각종 '북', '금(琴)', '공후', '비파'를 지칭하는 용어, 그리고 모두 1음절로 된 국악기 명칭 등 국악 용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궁중의 각종 잔치, 제례, 행사를 나타내는 용어, 궁중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지칭하는 용어, 궁중에서 음

6) '공후(箜篌)'류 악기는 수나라 궁중에 둔 구부기(九部伎)에 사용되던 악기이다.
7) '비파(琵琶)'류 악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중의 안팎에서 널리 연주되었던 대표적인 악기이다.
8) '쟁(箏)'은 국악기 중 현악기의 하나로 주로 궁중 제례에서 당악(唐樂)에 연주되었다. '적(篴)'은 아악기에 속하는 피리의 하나, '슬(瑟)'은 중국 고대 아악기의 하나, '독(牘)'은 조선 전기 아악에서 쓰인 타악기의 하나, '어(敔)'는 궁중에서 쓰던 타악기의 하나, '지(篪)'는 주로 아악에 쓰는 우리나라 전통 목관 악기의 하나, '축(柷)'은 아악기에 속하는 타악기의 하나이다.
9) 통일 신라・고려 시대에, 해마다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 술, 다과, 놀이로써 즐기고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
10) 종묘 ・문묘 등의 제사를 지낼 때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순(祭順).

악 연주를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을 지칭하는 용어, 궁중 음악인들이 입는 의복을 나타내는 용어, 궁중 행사 때 쓰이는 의물(儀物)이나 기구를 가리키는 용어도 있다. 그리고 국악 작품이나 작품집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도 살펴볼 수 있다.

〈표 4〉 AA형 고유어 동양 음악 용어 예시

전통 음악	전통 악기	거문고, 꽹과리, 날라리, 피리, 대피리, 뼈피리, 버꾸[11], 질장구
	악기 부속품	부들[12], 북채, 북자루, 술대[13], 채, 열채
	국악 장단	굿거리장단, 세마치장단, 휘모리장단, 단모리장단, 중모리장단, 엇모리장단, 타령장단, 무릎장단, 북장단, 단모리, 엇중모리, 도드리
	민속 음악	광대, 굿, 길놀이, 땅재주, 버꾸놀이, 판소리, 줄타기

고유어는 대부분이 전통 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도표의 예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나 악기의 부속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국악 장단을 가리키는 용어와 민속 음악과 관련된 용어도 있다.

고유어+한자어 중에는 '당피리, 도피피리, 쌍피리, 향피리'와 같은 '피리'류 악기와 '장구'나 '거문고'의 부속품을 지칭하는 용어 '변죽, 북편, 채편, 돌괘' 등이 있다. '당악장단, 진양조장단' 등 국악 장단을 나타내는 용어도 소량 있다.

(2) AA형 서양 음악 용어

AA형 서양 음악 용어 중에는 한자어가 가장 많고 외래어가 그다음으로 많으며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한자어+외래어는 출현 빈도가 낮다. 순차적으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농악기의 하나. 자루가 달린 작은북으로, 모양은 소고와 비슷한데 그보다는 훨씬 크다.
12)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꼬아 거문고·가야금·대쟁·아쟁 등 현악기의 현을 잇는 데 쓰는 줄.
13) 거문고나 향비파를 타는 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

〈표 5〉 AA형 한자어 서양 음악 용어 예시

악보	각종 '음'	근음, 반음, 경과음, 지연음, 미분음, 후타음
	각종 '화음'	화음, 화음기호, 삼화음, 칠화음, 구화음, 감삼화음, 감칠화음, 주요삼화음, 중화음, 변화화음, 불협화음
	각종 '음정'	음정, 증음정, 감음정, 완전음정
성악	이론	발성, 발성법, 호흡법, 복식호흡, 성부, 내성부, 저음성부, 음역, 남성고음, 남성중음
	창법	독창, 중창, 이중창, 사중창, 오중창, 합창, 이부합창, 삼부합창, 사부합창, 혼성합창, 무반주합창, 남성합창
기악	악기 유형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전자악기
	기악 유형	기악, 관악, 관현악, 현악
	합주 유형	합주, 기악합주, 현악합주, 관악합주, 관현악합주
	악곡 유형	악곡, 기악곡, 서곡, 전주곡, 간주곡, 변주곡, 엄격변주곡, 자유변주곡, 합주곡, 협주곡, 독주곡, 관현악곡

서양 음악 용어 한자어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유래한 기초 음악 이론 용어들이 많은데 특히 악보나 성악, 기악과 관련된 용어가 많다. 위의 도표와 같이 악보에 쓰이는 한자어 중에는 각종 '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음' 중에서도 '화음'과 관련된 용어가 많으며 '음정'과 관련된 용어도 있다. 성악과 관련된 용어로는 '발성법, 호흡법, 성부, 음역'과 관련된 용어가 있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나타내는 '중창, 합창'류 용어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악 관련 용어로는 악기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들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나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에 따라 악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악을 악기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용어도 있고 기악 합주 형식을 표현하는 용어와 악곡을 형식, 연주 방식, 악기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눈 용어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이 서구의 음악 이론이 한자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정착된 것이다.[14]

14) 신대철(2005)에 의하면 서양 음악 용어의 수용은 일본, 중국, 한국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말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기관이었던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성악, 악리, 창가가곡, 풍금, 사현금'의 전공을 두었다. 신대철, 「한국·중국·일본의 서양 음악 수용」, 『한국음악연구』 38, 한국국악학회, 2005.

〈표 6〉 AA형 외래어 서양 음악 용어 예시

악기	피아노, 하모니카, 하프, 호른, 기타, 류트, 리라, 마라카스, 마림바, 만돌린, 바이올린, 비브라폰, 비올라, 오르간, 오보에, 첼레스타, 첼로, 쳄발로, 캄파넬라, 클라비코드, 튜바, 트롬본, 팀파니, 파이프오르간, 그랜드피아노
인명	바흐,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슈만, 하이든, 그리그, 멘델스존
장르	발라드, 블루스, 오페라, 오케스트라, 마주르카, 발레, 세레나데, 콩쿠르, 아리아, 라르고, 아카펠라, 트리오, 론도, 토카타, 가보트, 미사
연주 기법	다카포, 데타쉐, 라르고, 레가토, 디미누엔도, 랄렌탄도, 리타르단도, 마르카토, 모데라토, 스타카토, 스피카토, 아템포, 아니마토, 아다지오, 안단테, 안단티노,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알레그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테누토, 트레몰로, 포르타멘토, 포르테, 피아노, 피치카토

서양 음악 용어 외래어는 서양 악기, 서양 음악가 인명, 서양 음악 장르, 서양 음악 연주 기법과 관련된 용어가 많다. 예시를 살펴보면 우선 악기 명칭과 인명은 모두 고유명사로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이다. 그리고 장르를 나타내는 용어와 연주 기호나 연주 기법을 나타내는 용어는 모두 음악 이론 전문용어이다. 이런 용어들은 남북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인해 Aa형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연주법 관련 용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5]

〈표 7〉 남북 연주기호

남	북
다 카포	다카포
스타카토	스타카토
테누토	테누토
타이	타이
슬라	슬라
피네	휘네
달 세뇨	달 쎄니오
페르마타	훼르마타

15) 이런 용어들은 형태가 동일한 AA형도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이 다른 Aa형에도 나타난다. 구분하기 위해 AA형은 도표에서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표 8〉 남북 빠르기말

남	북	남	북
라르고	라르고	매우 느리게	아주 느리게
안단테	안단테	느리게	천천히
아다지오	아다지오	조용하고 느리게	느리게
안단티노	안단티노	조금 느리게	좀 느리게
모데라토	모데라토	보통 빠르게	보통속도로
알레그레토	알레그레토	조금 빠르게	좀 빠르게
알레그로	알레그로	빠르게	빠르게
프레스토	프레스토	매우 빠르게	아주 빠르게
리타르단도/랄렌탄도	리타르단도/랄렌탄도	점점 느리게	점차 느리게
피우모소	피우 모쏘	더욱 빠르게	더 빨리
아첼레란도	악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점차 빠르게
아 템포	아 템포	원래의 빠르기로	본래의 속도로

연주법 관련 음악 전문용어는 남북 모두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연주의 강약을 나타내는 '셈여림표'[16]와 속도를 나타내는 '빠르기말' 은 남북 교과서에서 모두 고유어 뜻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 교과서에 제시된 고유어 설명마저도 다른 경우가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17] 따라서 이런 용어들은 표준화와 통합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9〉 AA형 고유어+한자어 서양 음악 용어 예시

악보	'음, 조, 표' 관련	음높이, 음길이, 조바꿈, 조옮김, 앞선음, 지난음, 내림표, 올림표, 늘임표
	각종 '쉼표'	쉼표, 이분쉼표, 사분쉼표, 팔분쉼표, 점쉼표
	각종 '박자'	박자, 사분의삼 박자, 사분의사 박자, 팔분의육 박자

고유어+한자어는 우리말로 순화된 악보와 관련된 이론 용어가 많다. 위의 예시와 같이 '음, 조, 표' 관련 음악 이론 용어, 각종 '쉼표'류 용어, 각종 '박

16) 〈표 14〉 참고.

17) 북측 교과서에 의하면 '안단테'는 '천천히'로 해석되고 '아다지오'는 '느리게'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은 '안단테'를 '느리게'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다지오'는 '조용하고 느리게'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똑같은 '느리게'가 남북이 서로 다른 음악 전문용어를 지칭하는 현상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천천히'와 '느리게'는 의미적으로 유사하여 서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측의 용어보다 남측의 용어가 의미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류 용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상위어인 기본 용어를 기반으로 합성이나 파생을 통해 하위어가 만들어진다. 특히 '쉼표'류와 '박자'류 용어는 박자의 길이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호나 숫자를 결합하여 하위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쉼표'류 용어와 '박자'류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는 '쉼표'류 용어를 박자의 길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표 11〉은 '박자'류 용어를 '단순박자', '복합박자', '혼합박자'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쉼표 체계는 남북 전문용어가 대부분이 형태가 동일하지만 '온쉼표'를 지칭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박자 체계는 남북이 모두 형태가 동일하다.

〈표 10〉 남북 쉼표 체계

쉼표	온쉼표/옹근쉼표[18]	2분쉼표	4분쉼표	8분쉼표	16분쉼표
점쉼표	점온쉼표/옹근쉼표	점2분쉼표	점4분쉼표	점8분쉼표	점16분쉼표

〈표 11〉 남북 박자 체계

	단순박자			복합박자			혼합박자	
박자	2/2박자	3/2박자	4/2박자	6/4박자	9/4박자	12/8박자	5/4박자	7/4박자
	2/4박자	3/4박자	4/4박자	6/8박자	9/8박자	12/16박자	5/8박자	7/8박자
	2/8박자	3/8박자	4/8박자	-	9/16박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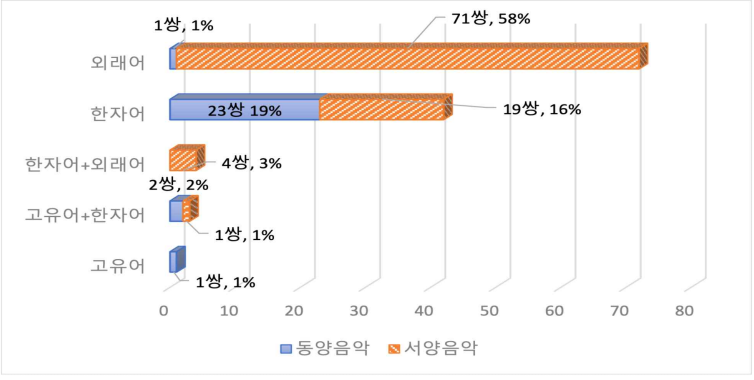
고유어는 '줄, 줄조이개, 활, 활대' 등 '거문고'나 '가야금'과 같은 전통 현악기의 부속품을 지칭하는 용어와 '가락, 마디, 잔가락, 느리게, 배숨쉬기'와 같은 서구 이론을 고유어로 순화한 이론 용어 등이 있다.

한자어+외래어는 '리듬악기, 피아노소품,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론도 형식, 피아노 삼중주, 피아노곡,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과 같이 기존 외래어 음악 전문용어에 한자어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악 전문용어를 나타낸 악기, 악곡 관련 예를 들 수 있다.

18) 남측의 '온쉼표, 점온쉼표'는 북측의 '옹근쉼표, 점옹근쉼표'와 대응된다.

2) 부분 동형 음악 전문용어

부분 동형 음악 전문용어는 외래어가 72쌍(59%)로 가장 많고, 한자어가 42쌍(34%)로 2위를 차지하며 고유어는 1쌍, 고유어+한자어는 3쌍, 한자어+외래어는 4쌍으로 모두 3%미만의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남북 외래어 표기법에 차이에 의해 대응되는 용어가 가장 많고, 두음 법칙 차이로 대응되는 용어가 그다음을 차지한다. 부분 동형 전문용어는 남북이 발음이나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Aa형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쌍, %)

Aa형 외래어 중 71쌍이 서양 음악 용어이고 1쌍이 동양 음악 용어이다. 한자어는 서양 음악 용어와 동양 음악 용어의 출현 빈도가 각각 19쌍, 23쌍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자어+외래어는 4쌍이 모두 서양 음악 용어이고 고유어+한자어는 동양 음악 용어가 2쌍, 서양 음악 용어가 1쌍이며 고유어는 동양 음악 용어 1쌍이 유일하다.

(1) Aa형 동양 음악 용어

Aa형 동양 음악 용어는 전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매우 낮다. 한자어가 23쌍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는 각각 2쌍,

1쌍, 1쌍으로 출현 빈도가 미미하다. 한자어+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Aa형 한자어 동양 음악 용어 예시

전통 음악	국악기	나-라, 노고-로고, 노도-로도, 뇌고-뢰고
	국악 연주 기법	농음-롱음, 농현-롱현, 입창-립창, 여창-녀창
	기보법	육률-륙률, 육려-륙려

Aa형 한자어 음악 전문용어는 대부분이 전통 음악과 관련된 용어이다. 이런 용어들은 남북이 두음 법칙 차이로 인해 대응쌍을 이루고 있다. 북측의 '롱음, 롱현' 등은 'ㄹ 두음 법칙'에 의해 남측에서 'ㄴ'으로 실현되고 북측의 '녀창'은 'ㄴ 두음 법칙'에 의해 남측에서 'ㅇ'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북측의 '륙률, 륙려' 등은 남측에서 두 가지 두음 법칙이 모두 적용되어 'ㅇ'으로 실현된다.

고유어+한자어는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와 관련된 용어 '상엿소리-상여소리', 우리나라 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인 '육자배기-륙자배기' 등이 있다. 전자는 사이시옷 차이에 의해 대응쌍을 이룬 경우이고 후자는 두음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대응쌍이다. 고유어는 민요의 하나인 '뱃노래-배노래'가 유일한 용어로 남측은 사이시옷을 첨가하는 반면 북측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서 형태가 서로 다르다. 외래어는 16세기말 일본 예술 형식의 하나인 '가부키-가부끼'가 유일한 용어이다. 남북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 발음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2) Aa형 서양 음악 용어

Aa형 서양 음악 용어는 외래어가 71쌍으로 가장 많고 한자어가 19쌍으로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한자어+외래어는 4쌍, 고유어+한자어는 1쌍으로 출현 빈도가 매우 낮고 고유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Aa형 외래어 서양 음악 용어 예시

악기	드럼-드람, 색소폰-쌕스폰, 실로폰-씰로폰, 심벌즈-씸발, 코넷-코르네트, 클라리넷-클라리네트, 탬버린-탐브린, 트럼펫-트럼페트, 플루트-플류트, 피콜로-픽콜로, 베이스 클라리넷-바스 클라리네트, 캐스터네츠-까스따넷띠, 트라이앵글-트라이앙글, 알토 색소폰-알토 쌕스폰, 알토 플루트-알토 플류트, 알토 클라리넷-알토 클라리네트, 업라이트피아노-아프라이트피아노, 잉글리시 호른-일글리쉬 호른, 베이스-바스
인명	드보르자크-드보르쟈끄, 라흐마니노프-라흐마니노브, 로시니-로씨니, 리스트-리스뜨, 림스키코르사코프-림스기꼬르싸꼬브, 모차르트-모짜르트, 무소륵스키-무쏘르스끼, 쇼팽-쇼뺑, 슈베르트-슈벨트, 스메타나-스메따나, 에디트피아프-에디뜨삐아쁘, 차이콥스키-챠이꼽스끼, 파가니니-빠가니니, 헨델-핸델
장르	재즈-쟈즈, 왈츠-왈쯔, 듀엣-두에트, 칸타타-깐따따, 소나타-쏘나타, 소나티네-쏘나티네, 스케르초-스케르쪼, 솔로-쏠로, 앙상블, 오라토리오-오라또리오
연주기법	메노 모소-메노 모쏘, 메조 포르테-메쪼 포르테, 메조 피아노-메쪼 피아노, 메조 소프라노-메쪼 쏘프라노, 글리산도-글리싼도, 논레가토-논레카토, 데크레셴도-데크레쎈도, 소스테누토-쏘스떼누또, 스포르찬도-스포르짠도, 아첼레란도-악첼레란도, 알레그로토 스케르찬도-알레그레또 스케르짠도, 알레그로 마 그라치오소-알레그로 마 그라찌오쏘, 크레센도-크레쎈도, 포르티시모-포르티씨모, 피아니시모-피아니씨모, 피우모소-피우모쏘, 세뇨-쎄니오, 달 세뇨-달 쎄니오, 페르마타-훼르마타, 피네-휘네

Aa형 서양 음악 외래어는 고유명사인 서양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와 서양 음악가 인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고 또 음악 이론과 관련된 용어로 서양 음악 장르, 서양 음악 연주 기법과 관련된 용어가 있다. 이들은 모두 남북 외래어 표기법 차이로 인해 대응쌍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AA형 외래어 서양 음악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근대 이전에 발달한 것으로 분단 이전에 유입된 용어로 추정된다. 연주 기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앞서 AA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화가 필요한 용어들이다. '셈여림표'도 AA형, Aa형 속하는 용어가 함께 체계를 이룬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셈여림표'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9]

19) 북측은 '셈여림표'를 '강약기호'라고 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AA형은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표 14〉 남북 셈여림표(강약기호)

남	북	연주법 설명	
		남	북
피아니시모	피아니씨모	매우 여리게	아주 약하게
메조 피아노	메쪼피아노	조금 여리게	좀 약하게
피아노	피아노	여리게	약하게
스포르찬도	스포르짠도	돌연히 악센트를 붙여서	특히 강하게
포르티시모	포르티씨모	매우 세게	아주 강하게
메조 포르테	메쪼포르테	조금 세게	좀 강하게
포르테	포르테	세게	강하게
크레센도	크레쎈도	점점 세게	점차 강하게
데크레센도	데크레쎈도	점점 여리게	점차 약하게
디미누엔도	디미누엔도	점점 여리게(사라지듯이)	점차 약하게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피아노	세게, 다음 음은 여리게	강하게 연주한 다음 갑자기 약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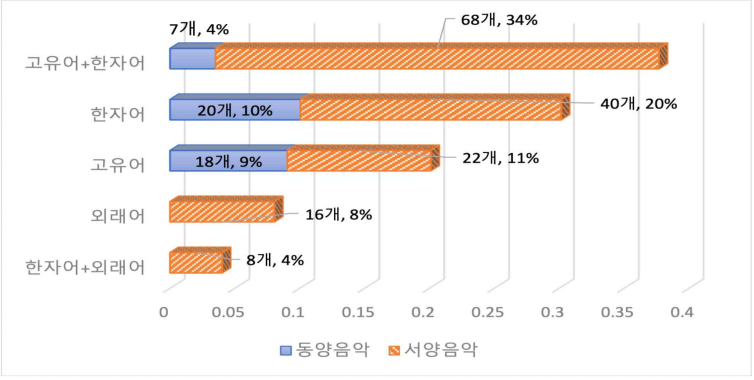
한자어는 음악의 3요소에 속하는 '선율-선률' 및 관련 용어 '주선율-주선률, 주제선율-주제선률, 고정 선율-고정 선율, 선율윤곽-선률윤곽'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서양 음악의 근대적 문예사조인 '낭만주의-랑만주의'를 아우르는 용어 '낭만파-랑만파, 낭만주의-랑만주의, 신낭만주의-신랑만주의, 낭만파 음악-랑만파 음악, 낭만파 작곡가-랑만파 작곡가'의 예도 살펴볼 수 있다.

한자어+외래어는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론도 소나타 형식-론도쏘나타 형식, 소나타 형식-쏘나타형식, 클라리넷협주곡-클라리네트협주곡' 등이 있고 고유어+한자어는 성악 개념 용어인 '아랫성부-아래성부'의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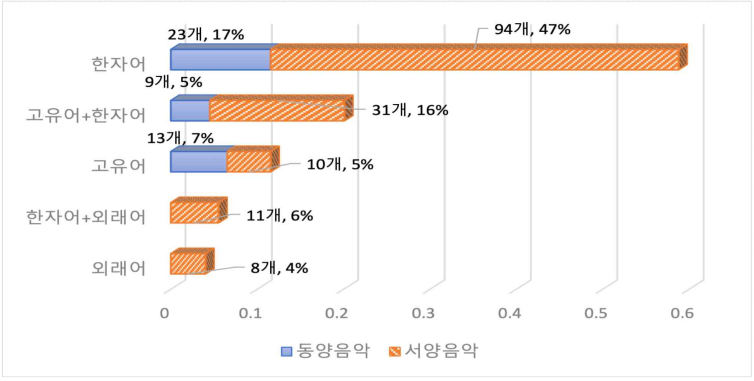
3) 이형 음악 전문용어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는 고유어+한자어가 75쌍(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한자어가 60쌍(30%)로 2위를 차지하며 고유어가 40쌍(20%)로 3위를 차지한다. 외래어는 16쌍으로 8%이고 한자어+외래어가 8쌍으로 4%이다.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는 한자어가 117쌍(59%)로 가장 많다. 고유

어+한자어는 40쌍(20%)이고 고유어는 23쌍(12%)이다. 한자어+외래어는 11쌍(6%)이고 외래어는 8쌍(4%)를 차지한다.



〈그림 7〉 AB형 남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개, %)



〈그림 8〉 AB형 북측 음악 전문용어의 어종별 출현 빈도(개, %)

AB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동양 음악보다 서양 음악에 속하는 용어가 훨씬 많다. 북측의 고유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모두 서양 음악 용어가 동양 음악 용어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나 모두 서양 음악 용어인 경우이다.

(1) AB형 동양 음악 용어

AB형 동양 음악 용어는 남측과 북측 모두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3가지 어종이 나타나고 외래어나 한자어+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AB형 동양 음악 용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예시를 대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자진가락-잦은 가락, 자진마치-잦은 마치, 자진모리장단-잦은 모리장단
(2) 조이개-축수, 조임줄-축승
(3) 수공후-선공후

(1)의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바와 같이 남측의 고유어 '자진'과 북측의 고유어 '잦은'의 대응 관계는 매우 특징이다.[20] 앞서 AA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악 장단을 나타내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훨씬 보편적이다. 2010년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국악용어표준안』에 의하면 '잦은산타령, 잦은아리'는 '자진산타령, 자진아리'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정 근거로 '실제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는 장구의 부속품을 지칭하는 남측의 고유어 '조이개, 조임줄'이 북측 한자어 '축수, 축승'과 대응하는 예이다. 남측이 고유어를 쓰고 북측이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 『국악용어표준안』에 의하면 '축수'를 비롯한 '부전, 새굴레'는 '조이개'로, '축승'을 비롯한 '죄는줄, 진흥사, 흥진사, 축승숫바'는 '조임줄'로 표준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악용어 통일안을 따름; 축수, 축수 등이 고유명칭이나 국악계의 보편적인 용어는 아님;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채택'이라고 선정 이유를 들고 있다.

(3)은 국악기 '공후'의 일종인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앞서 AA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후, 와공후'는 남북이 형태가 동일하지만 '수공후-선공후'는 형태가 다르다. 남측에서 한자어 '수공후(竪箜篌)'를 쓰는 반면, 북측은 고유어+한자어 '선공후(선箜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선공후'는 '수공후'의 다듬은 말로 수록되어 있다. 북측이

20) '자진'은 국악에서 '잦은' 또는 '빠른'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자진'이 포함된 음악 전문용어는 '자진강강술래, 자진개타령, 자진난봉가, 자진농부가, 자진모뜬소리, 자진모리, 자진몰이' 등 30여개가 있다.

'세울 竪'자를 고유어 '선'으로 순화한 것이다.

(2) AB형 서양 음악 용어

AB형 서양 음악 용어는 남측과 북측 모두 5가지 어종이 전부 나타나고 있다. 남측이 북측보다 고유어+한자어와 고유어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는 음악 전문용어가 각각 서로 다른 남북 순화 결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21]

(4) ㄱ: 온음표-옹근소리표, 이분음표-2분소리표, 사분음표-4분소리표, 팔분음표-8분소리표, 십육분음표-16분소리표
ㄴ: 점음표-점소리표, 점사분음표-점4분소리표,
ㄷ: 둘잇단음표-두가름소리표, 셋잇단음표-세가름소리표, 여섯잇단음표-여섯가름소리표
(5) 꾸밈음-장식음, 앞꾸밈음-앞장식음, 겹앞꾸밈음-겹앞장식음, 도움음-보조음

남측의 한자어 '음표'는 북측의 고유어+한자어 '소리표'와 대응하고 남측

21) 박재성(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음악 전문용어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84년에 이여진 교수에 의해 정리되었고 1988년 음악학연구회의 '민족주의음악 심포지엄'에서 박미경, 홍정수, 조선우 교수에 의해 '용어분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음악 전문용어의 한글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 한양대 음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용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음악 전문용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재성, 김문자 등을 비롯하여 1999년까지 『음악논단』에 관련된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출간하였고 2006년에 한국음악학회에서 '음악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을 시작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시켰다. 또한 이용식(2017)에 의하면 국악연구실에서 교육사업으로 진행했던 『교육용국악표 준악보: 향토민요 100선』(2009)과 『국악용어표준안』(2010) 발간 사업은 국립국악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국악계의 표준을 제시하여 교육의 확장에 크게 기여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음악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 관련 사업이나 연구가 비교적 드문 것이 실정이다. 박재성, 「서양음악용어의 한글표준화를 위한 논의: 음악이론용어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21, 한양대 음악연구소, 2007; 홍정수, 「음악용어들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한 모색」, 『장신논단』 4, 장신대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1988; 조선우, 「한글 음악용어를 진단한다: 초, 중, 고 음악교과서와 대학 음악통론을 중심으로」, 『음악학』 2, 한국음악학학회, 1990; 「남·북한 한글 기초음악용어에 대한 연구」, 『음악과 민족』 4, 민족음악연구소, 1992; ;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연구', 『음악논단』 7, 한양대 음악연구소, 1993;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통일을 위한 연구: 정의 및 한글 용어 제시(중세편)」, 『음악논단』 9, 한양대 음악연구소, 1995; 이용식,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술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제36집, 2017.

의 고유어+한자어 ‘꾸밈음’은 북측의 한자어 ‘장식음’과 대응한다. 음의 길이 또는 높이를 지시하는 기호인 ‘음표’의 종류에는 ‘기본음표’와 ‘꾸밈음’이 있다. (4)는 ‘기본음표’를 지칭하는 예이고 (5)는 ‘꾸밈음’을 지칭하는 예이다. ‘기본음표’에는 ‘민음표, 점음표, 잇단음표’가 있는데 (4ㄱ)은 ‘민음표’에 속하는 예이고 (4ㄴ)은 ‘점음표’에 속하는 예이며 (4ㄷ)은 ‘잇단음표’에 속하는 예이다. ‘온-’과 ‘옹근-’, ‘잇단-’과 ‘가름-’의 남북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기본음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5〉 남북 기본음표

민음표	남	온음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	십육분음표
	북	옹근소리표	이분소리표	사분소리표	팔분소리표	십육분소리표
점음표	남	점온음표	점이분음표	점사분음표	점팔분음표	점십육분음표
	북	점옹근소리표	점이분소리표	점사분소리표	점팔분소리표	점십육분소리표
잇단음표	남	잇단음표	둘잇단음표	셋잇단음표	넷잇단음표	다섯잇단음표
	북	가름소리표	두가름소리표	세가름소리표	네가름소리표	다섯가름소리표

(6) ㄱ: 낮은음자리표-저음기호, 가온음자리표-중음기호, 높은음자리표-고음기호
ㄴ: 제자리표-제자리기호, 내림표-내림기호, 올림표-올림기호, 겹내림표-겹내림기호, 겹올림표-겹올림기호
ㄷ: 임시표-림시기호, 박자표-박자기호, 조표-조기호
ㄹ: 줄임표-생략기호, 도돌이표-반복기호

(6)은 악보의 기호를 지칭하는 용어들로 남측의 한자어 ‘표’와 북측의 한자어 ‘기호’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6ㄱ)은 악보에서 음의 높낮이를 정하는 ‘음자리표’를 나타내는 예로 남측은 고유어 ‘낮은, 가온, 높은’으로 ‘음자리표’를 수식하는 반면, 북측은 한자어 ‘저, 중, 고’로 ‘음기호’를 수식하고 있다. (6ㄴ)은 음의 높이를 올리거나 내릴 것을 지시하는 기호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남북이 동일한 고유어 ‘올림, 내림’을 사용하고 있지만 남측은 악보의 기호를 ‘표’라고 칭하고 북측은 ‘기호’라고 칭하기 때문에 형태가 다

르다. (6ㄷ)과 (6ㄹ)은 그 외의 악보 기호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전자는 남북 모두 한자어를 쓰는 예이고 후자는 남측은 고유어+한자어, 북측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예로 남북 순화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남측의 '표'와 북측의 '기호'는 남북이 악보에 표기하는 기호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생긴 차이이다. 남측은 악보에 나타난 기호를 일종의 '표식'으로 인식하고 북측은 일종의 '기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음악 전문용어는 모두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7) ㄱ: 장음계-대음계, 단음계-소음계
ㄴ: 장조-대조, 다장조-도대조, 바장조-화대조, 사장조-쏠대조, 라장조-레대조, 사장조-쏠대조, 관계장조-관계대조, 내림마장조-내림미대조
ㄷ: 단조-소조, 가단조-라소조, 단조곡-소조곡, 단조교향곡-소조교향곡

(7ㄱ)은 남측의 '장음계, 단음계'와 북측의 '대음계, 소음계'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다.[22] (7ㄴ)과 (7ㄷ)은 '장·단음계'의 곡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자는 '장조'와 '대조'가 대응되는 예들이고 후자는 '단조'와 '소조'와 대응되는 예들이다. 남측은 음계를 길이로 인식하여 '장·단'으로 구분하고 있고 북측은 음계를 크기로 인식하여 '대·소'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23] '장·단조'와 '대·소조'의 하위 용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남측은 고유어 '다, 라, 마, 바, 사, 가, 나'로 음이름을 표현하는 반면에 북측은 외래어 '도, 레, 미, 화, 쏠, 라, 씨'로 표현하기 때문에 매우 헷갈리기 쉽다. 이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 통합 방안이 꼭 필요한 용어이다. 남북 장·단조(대·소조) 체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6〉 남북 장·단조(대·소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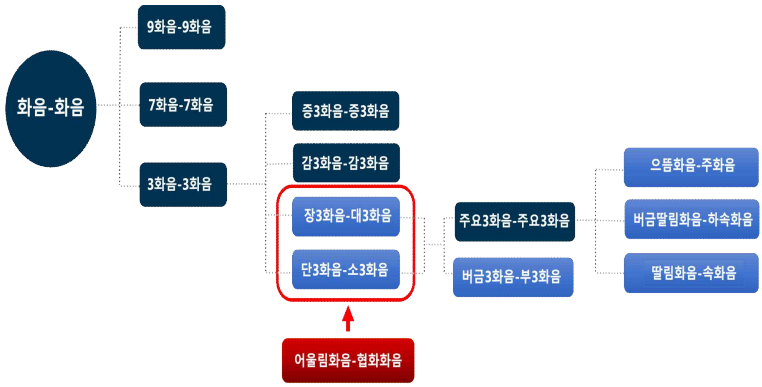
단조	남	다단조	라단조	마단조	바단조	사단조	가단조	나단조
	북	도소조	레소조	미소조	화소조	쏠소조	라소조	씨소조

22) '장음계'와 '단음계'는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두 종류의 음계를 뜻한다.
23) 남북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음계' 뿐만 아니라 '음정'을 표현할 때에도 나타나고 있다. 남측의 '장·단음정'은 북측의 '대·소음정'과 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장조	남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	바장조	사장조	가장조	나장조
	북	도대조	레대조	미대조	화대조	쏠대조	라대조	씨대조

(8) ㄱ: 장삼화음-대삼화음, 장칠화음-대칠화음,
단삼화음-소삼화음
ㄴ: 버금삼화음-부삼화음, 버금칠화음-부칠화음
ㄷ: 으뜸화음-주화음, 버금딸림화음-하속화음,
딸림화음-속화음, 딸림칠화음-속칠화음
ㄹ: 어울림화음-협화화음, 안어울림화음-불협화화음

음악에서 '화음'을 지칭하는 용어는 AA형뿐만 아니라 AB형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8)은 모두 화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8ㄱ)은 남측의 '장·단화음'과 북측의 '대·소화음'이 대응하는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측의 '장·단'에 해당하는 북측 용어는 '대·소'이기 때문에 '장삼화음, 단삼화음'은 자연스럽게 '대삼화음, 소삼화음'과 대응된다. (8ㄴ)은 남측의 '버금화음'과 북측의 '부화음'이 대응하는 예이다. 고유어 '버금'과 한자어 '부(副)'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8ㄷ)은 '으뜸화음'과 '주화음', '버금딸림화음'과 '하속화음', '딸림화음'과 '속화음'이 대응하는 예이다. 남측은 고유어 '으뜸, 버금딸림, 딸림'으로 화음의 순서를 매기는 것과 달리 북측은 한자어 '주-, 하속-, 속-'으로 이들을 구분한다. (8ㄹ)은 서로 어울리는 소리인지에 따라 화음의 유형을 나누는 용어이다. 남측은 용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어울리다'의 명사형과 부정형 '안'을 붙여서 나타냈다. 북측은 한자어 '협화'와 한자어 부정 접두사 '불(不)'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남측 용어가 의미의 투명성이 더 강한 편이다. 삼화음을 대표로 남북 화음의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9〉 남북 화음 체계

화음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음의 수에 따라 '삼화음, 칠화음, 구화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남북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4] 이들은 하위분류 '장화음, 단화음, 증화음, 감화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증화음'과 '감화음'은 남북이 같은 형태로 쓰이지만 '장화음'과 '단화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음'과 '소화음'으로 대응한다. '장·단화음'은 다시 하위유형인 '주요화음'과 '버금화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화음'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버금화음'은 '부화음'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주요화음'은 또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삼화음'을 예로 들면 '으뜸화음(주화음), 버금딸림화음(하속화음), 딸림화음(속화음)'이다. 이 중에서 '장삼화음(대삼화음)'과 '단삼화음(소삼화음)'만 '어울림화음(협화화음)'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어울림화음(불협화화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북은 동일한 서구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용어만 일치하고 일부 용어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25]

24) 〈그림 6〉에서 어두운 남색으로 표시한 것은 남북이 형태가 동일한 AA형 용어이고 밝은 남색으로 표시한 것은 AB형 용어이다.
25) 통합의 용이성을 위해 동형 전문용어를 최대한 그대로 쓰는 것이 경제적이겠지만 음악 용어의 교육을 위해서는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우리말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를 대응쌍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동·서양 음악에 따라 유형을 세분하여 어종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남북 완전 동형 전문용어는 향후 즉시 통합이 가능한 용어들로, 어종 특징은 한자어가 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동·서양 음악 용어의 출현 빈도가 비슷하다. 동양 음악 전문용어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한 갈래인 특히 궁중 음악을 대표하는 정악 용어가 가장 많았다. 서양 음악 용어는 한자어 번역을 통해 받아들여진 서구 이론 용어가 대부분인데 유입 경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남북은 같은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다. AA형 외래어는 거의 전부가 서양 음악 용어이다. 대부분이 서양 악기, 음악가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남북 모두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하다. 또한 연주 기법을 나타내는 악보 이론 용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Aa형 외래어에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셈여림표', '빠르기말' 등은 남북 교과서에서 고유어 뜻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표준화와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고유어는 거의 모두 동양 음악 용어인데 한자어와 달리 대부분이 국악 장단이나 민속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남북 부분 동형 음악 전문용어는 어문 규범이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어종 특징은 대부분이 서양 음악 용어로, 특히 외래어가 가장 많은데 AA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기, 음악가 이름, 연주 기법 관련 용어가 많다. Aa형에서 동양 음악 용어는 서양 음악 용어보다 출현 빈도가 훨씬 낮다. Aa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외래어 표기법, 두음 법칙 차이로 인해 대응쌍을 이루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이형 음악 전문용어는 향후 통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차이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종 특징은 남측이 북측보다 고유어+한자어, 고유어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AB형은 대부분이 서양 음악 이론 용어들인데 이질화된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의 음악 전문용어가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을 바탕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가 다르게 쓰는 원인 중 가장 보편적인 원인으로 동·서양 음악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동양 음악 용어의 대표적인 예로 남측의 고유어 '자진'과 북측의 고유어 '잦은'의 대응, 남측의 고유어 '조이개, 조임줄'과 북측 한자어 '축수, 축승'의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서양 음악 용어의 대표적인 예로 남측의 한자어 '음표'와 북측의 고유어+한자어 '소리표'의 대응, 남측의 고유어 '어울림, 안어울림'과 북측의 한자어 '협화, 불협화'의 대응, 남측의 고유어 '버금, 으뜸, 버금딸림, 딸림'과 북측의 한자어 '부(副), 주(主), 하속(下屬), 속(屬)'의 대응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남북이 음악 전문용어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는 남북 음악 전문용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이 음계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남측은 '장·단'을 쓰는 반면 북측은 '대·소'를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단조'계열 용어는 '대·소조'계열 용어와 대응되고 '장·단삼화음'계열 용어는 '대·소삼화음'계열 용어와 대응된다. 다른 예로 악보에서 기호를 나타내는 '표'와 '기호'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셋째, 조어 단위로 활용되는 기초 음악 전문용어 체계가 다르다. 음이름을 표현하는 남북은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남측은 고유어 '다, 라, 마, 바, 사, 가, 나'를 사용하고, 북측은 외래어 '도, 레, 미, 화, 쏠, 라, 씨'를 사용한다. 따라서 음이름을 조어 단위로 한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보인다.

이처럼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동·서양 음악 모두 동형인 경우가 이형인 경우보다 많다. 이는 향후 통일 대비 음악 교재를 개발하거나 현재 당장 탈북민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이형 남북 음악 전문용어의 경우도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하면 용어별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통합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남북 음악 전문용어는 중에는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종종 있다.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음악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립국악원, 『국악용어 표준안』, 국립국악원, 2010.
국립국어원, 『남북 음악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2019.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통일을 위한 연구: 정의 및 한글 용어 제시(중세편)」, 『음악논단』 9, 한양대 음악연구소, 1995, 47-88면.
김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화 현황 분석연구」, 『음악논단』 7, 한양대 음악연구소, 1993, 69-94면.
박재성, 「서양음악용어의 한글표준화를 위한 논의: 음악이론용어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21, 한양대 음악연구소, 2007, 47-73면.
신대철, 「한국·중국·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한국음악연구』 38, 한국국악학회, 2005, 143-172면.
이용식,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술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악원논문집』, 국립국악원 제36집, 2017, 111-155면.
장사훈,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91.
조선우, 「남·북한 한글 기초음악용어에 대한 연구」, 『음악과 민족』 4, 민족음악연구소, 1992, 276-314.
조선우, 「한글 음악용어를 진단한다: 초, 중, 고 음악교과서와 대학 음악통론을 중심으로」, 『음악학』 2, 한국음악학학회, 1990, 237-272면.
홍정수, 「음악용어들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위한 모색」, 『장신논단』 4, 장신대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1988, 253-283면.

【Abstract】

Analysis of North-South Music Terminology Types and Species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Jin, Ling-Ling* · Shin, Jung-Jin**

This paper focuses on linguistic research that can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inter-Korean terminology in the music curriculum, and divides the terminology of North and South music terms according to whether the morph is the same or not and divides it into Eastern music terms and Western music term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word types.

Mos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homomorphic terminology is a term that can be integrated immediately or naturally integr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linguistic norms. In the case of traditional music, most of the terms related to 'Jeongak(정악)' or 'Folk music(민속악)'. The former appeared a lot in Chinese characters, and the latter appeared a lot in native words or Chinese characters. In the case of Western music, many terms related to musical instruments or people's names, which often used as foreign words, and many terms related to basic music theory terminology, such as vocal music and instrumental music, which often used in Chinese characters. Most of the terminolog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different forms is identified as Western music terminology. Ther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term forming unit '자진, 음표, 표, 장·단 ' in the South is correspond to the term forming unit '잦은, 소리표, 기호, 대·소' in the North, which can be easily predicted and understood without having to memorize each term once the rules are understood.

Keywords: Music terminology, Oriental music terminology, Western music terminology, North and South terminology, word type.

접수일: 2022.03.31.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23.

* Instructor, Dept. of Erica Campus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Center, Hanyang Univ.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